남원 도통동 등, 재난대응체계 구축 물자지원 협약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는 최근, 남신관광, 마트타운, 산골건설중기 등 4개 업체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물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읍면동장 6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도통동 관내 재난 발생 시 상황별 장비와 물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남신관광은 주민 대피를 위한 버스를, 마트타운은 생수 등 비상 생필품을, 산골건설중기는 중장비를 각각 지원,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봄철 산불에 대비한 진화 장비 조작 실습을 진행해 실전 대응 능력을 점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구림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등 전개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구림농협(조합장 김순용),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지난 11일 순창군 구림면 화암리 일원에서 '영농지원 발대식 및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은 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농경지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영농부산물을 정리하는 등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신종철 지부장은 "봄철 영농 부산물 소각 방지와 영농 폐기물 수거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 부남제일교회, 산불피해 주민 돕기 성금기탁

무주군 부남제일교회에서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변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11일 무주군 부남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한열 목사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이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라며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라 크진 않지만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남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에 따듯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부남면 대소리에 위치한 부남제일교회에는 40여 명의 성도들이 이웃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청 간부 공무원7명,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노금선, 건강증진과장 국은희, 용담면장 노기환, 기술보급과장 송병선, 농촌활력과장 오재열, 농촌지원과장 정경애, 안천면장 차재철 등 간부 공무원 7명이 함께 모은 장학금 8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여한 노금선 소장은 "진안군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여건 속에서 부족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며 "진안군 아이들의 꿈을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의료환경 개선·주민 건강복지 향상'

전북자원봉사센터, 몽골 달란자드가드시와 의료협력 MOU체결… 8월 해외의료봉사단 파견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정석)는 13일 몽골 우문고비 주 달란자드가드시(시장 척트 데네더르지)와 의료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으며, 전북자원봉사센터와 몽골 달란자드가드시는 해외의료봉사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과 의료인 참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등 6개국에 17회에 걸쳐 대학생과 전문봉사자 500여 명을 파견 해외봉사를 전개, 2019년부터는 도내 4대 의약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몽골 달란자드가드시를 봉사 대상지로 선정, 오는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현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처방,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봉사단에는 전북 4대 의약단체와 의료기사연합회 등이 함께 참여한다.
협약에 참여한 척트 데네더르지 달란자드가드 시장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한국의 선진 의료진과 협력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영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의료봉사를 넘어 국제사회 속 인도적 책임 실현과 K-의료 확산,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형 대외협력과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은 현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 구축이다." 고 말했다.
/이만호기자

정읍 이통장연합회·산내면 이장협의회, 산불 피해 성금 전해

정읍시 이통장들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온정을 전했다.
정읍시 이통장연합회(회장 강연천)와 산내면 이장협의회(회장 강연천)는 14일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각각 500만원과 115만원의 성금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통장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준비한 나눔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돋보였다.
강연천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지역을 위해 늘 발로 뛰며 봉사해주시는 이통장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피해복구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기탁은 시민들이 서로를 위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해가는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공모 선정… 2년 연속 추진

남원시가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챙기기 위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에 선정돼 2년 연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은 지난 4월 8일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협력하기 위한 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 가구,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생필품을 배송하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비상 연락망을 통해 남원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일상에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고립 가구 해소와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4년에는 이 사업을 통해 2,600회의 안부살핌, 500건의 방문 상담, 90여 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큰 호응을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휴텍산업 강현욱 대표, 고향사랑 500만원 기탁

순창군은 14일 (주)휴텍산업의 강현욱 대표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강현욱 대표를 비롯해 남부대학교 최승식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강현욱 대표는 인명구조함,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제조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주)휴텍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휴텍산업은 2020년 7월에 설립되어 광주 남부대학교 산학협력센터에 소재하고 있다.
비록 순창이 고향은 아니지만, 강 대표는 고등학교 선배인 최승식 교수로부터 순창을 소개받은 것을 계기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2024년 제1회 김장체험·나눔 페스티벌을 응원하며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박남하 SM웰빙타운 대표, 무주군에 고향사랑기탁

SM웰빙타운(경기도 시흥시 소재, 건강식품 생산업체) 박남하 대표가 지난 12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
재경무주군민회 무풍면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남하 회장은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서 인천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 선영이 무풍에 있어 고향을 생각하면 늘 애틋하다"라며 "지금도 면민의 날이나 동창회 등 선후배들이 같이하는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고향 발전에 마음을 보태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남하 대표의 고향은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도마마을로 덕지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무풍중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이사해 지금껏 인천에서 생활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고향사항기부금 1백만원 등 성금·장학금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 하서농협, 하서면민의 날 장학금 500만원 기탁

부안군 하서농업협동조합(조합장 기세원)은 지난 11일 하서면민의날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하서농협은 이날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하서면민의 날 행사에 지역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 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것.
기세원 조합장은 "지역에서 성장하는 인재들이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소중한 장학금을 전달해 준 하서농협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탁된 장학금은 지역인재들의 미래를 밝히는 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하서농업협동조합은 지역 농업 발전과 더불어 나눔 활동을 지속, 상생을 실천해오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5회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 19일 풍남문화광장서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주시지부(회장 김양옥)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장애인복지협회가 주관하는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제5회 장애인문화예술콘서트가 오는 19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는 초청가수 공연, 기타, 색소폰, 펜플룻 등이 진행, 300여명의 장애인과 시민을 초청해 무료로 열린다.
또한, 이미용봉사단이 무료 이미용봉사를 실시하고, 푸짐한 행운상품도 증정한다.
김양옥 회장은 "본 행사가 장애인의 날을 뜻있게 보내고, 장애인 사회인식 개선과 문화예술 참여 확대에 이바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춘 기자

전주교대 11회 졸업생 일동, 대학발전기금 기부

전주교육대학교 동문인 전주사범학교 11회 졸업생 일동이 졸업 66주년을 기념해 대학발전기금 1,100만원을 기부했다고 전했다.
14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지난 11일 총장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졸업생 일동은 "모교에서 받았던 교육이 삶에 큰 힘이 돼 이에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후배들을 응원하는 동문으로 남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과 후학 양성 등게 사용될 예정이다.
박병춘 총장은 "이번 기부가 단순한 기금 전달을 넘어 우리 학교의 전통과 인연을 되새기고, 모교를 위해 동문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재인천남원향우회,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재인천남원향우회(회장 이엽, 주생 출신) 회원들이 300여만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3년 연속으로 인천향우회원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치않는 고향사랑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고향 발전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탁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에 가치 있게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남원시는 그동안 모인 기부금으로 2024년에 미래인재 해외영어캠프 지원(중학생 24명, 2억원) 및 남원제일고 현장실습용 푸드트럭 지원(1대, 8천만원) 사업을 시행했다.
/남원=김기두기자